



## 화합 기반 불교복지 일군다



8월9일 성남 봉곡사 주지 효관 스님과 신도들이 노인복지 시설 자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봉곡사

### 경기 이천·용인·성남

**이천** 사암련 주축, 장학사업·北어린이 지원 '한뜻'

**용인** 봉축행사·불우이웃돕기 통해 이미지 변신

**성남** 직장 신행 활기...사찰간 불화 해결과제로

#### # 이천

이천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천 불교가 활발한 움직임은 보인 적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합은 잘되고 있지만 포교활동은 다소 약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 평가는 보는 관점의 시각 차이일 뿐이며, 하나로 요약하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는 사암련연합회가 그만큼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이천사암련연합회는 어느 지역과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만큼 단합된 힘을 자랑한다.

4년 전 열린 세계 도자기엑스포 전야제를 사암련연합회가 주관한 건 그만큼 사암련연합회가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천 불교는 지역민에게 불교의 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불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여기에서 영업용 차량 염주 걸어주기, 불우아동 장학금 지원, 이천시 장학회 후원, 북한 어린이 돕기 등의 활동으로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개별 사찰들의 활동은 다소 미약한 편이다. 영월암(주지 흥법) 등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포교활동을 벌이는 사찰이 없다. 포교활동이 약하다는 평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체 70여 사찰 중 신행 및 포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찰이 드물다는 것이 바로 이천 불교가 안고 있는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과 지역민들은 한결같이 이천 불교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그 이유는 사암련 차원에서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천 불교를 대표하는 영월암이 포교 활성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천사암련은 불교회관 건립, 유치원 운영, 경승설치 문제 등 지역불교 현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또 철야참선법회를 개설해 포교 활성화에 나선 영월암은 기도도량이자 지역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한편, 시내에 위치한 영월암 포교당에서 시민선방과 요가와 꽃꽂이 등 다양한 문화 강좌를 열어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 계획이다.

#### # 용인

인구 80여만 명의 용인. 신흥개발지역인 용인은 신도시 대부분이 그렇듯이 불교세가 약한 편이다. 사찰 수는 140여 곳 정도로 적은 편이 아니지만, 변변한 도심포교당 하나 없는 데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극히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않았다. 사암련연합회 역시 이렇듯 유지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용인 불교는 침체된 분위기에 빠져버린 듯했다.

하지만 용인 불교는 최근 몇 년간 봉축행사와 불우이웃돕기 등 복지활동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같은 분위기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기대감이 차 있다.

이런 기대감의 중심에는 사암련연합회가 있다. 용인

사암련은 지난 3월 용덕사 주지 성호 스님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한 활로 모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성호 스님은 시민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지역 사찰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 사찰들의 사암련 활동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포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용인의 대표 사찰인 용덕사(주지 성호)의 변화에 거는 기대도 크다. 결식아동과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후원을 통해 이미지를 높여 온 용덕사는 현재 봉사 중인 수련원이 완공되는 대로 템플스테이를 여는 한편, 내년까지 시민선방과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역불교 활성화에 나설 채비를 분주하다. 여기에다 10월 경 완공예정인 용덕사의 여성 재소자 아동양육시설이 가동될 경우 불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지역 사찰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통사찰 백련사(주지 범공)도 용인 불교 발전을 견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에버랜드에서 4.5km나 떨어져 있어 지역민들이 찾기 쉽지 않은 백련사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한편, 경전학교와 일요법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포교에 뛰어들 계획이다.

#### # 성남

인구 100만의 성남. 인구만큼이나 사찰도 적지 않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사찰 수는 대략 200여 개. 1994년 분당 신도시가 생기면서 사찰도 적지 않게 늘었다.

올해 5월과 6월에는 중부경찰서 범우회와 시청공무원 불자회가 잇달아 창립되면서 재가불자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사암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6월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호국영령천도 영산재를 개최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부 사찰들도 열심히 뛰고 있다. 통도사 분당 포교당인 장안사(주지 성화)가 도심 한복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행조직으로 불자들의 신행을 이끌고 있고, 대규모 사찰인 천태종 대광사(주지 운덕)는 기도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영운정사(주지 영운)는 다도장좌로, 약사사(주지 혜안)는 노인 무료급식으로, 전통사찰인 봉곡사(주지 효관)는 불교복지대학과 봉사신행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성남 불교는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성남의 스님들 스스로도 성남 불교가 약하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우선 지역불교를 이끄는 데 주축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암련연합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사암련 회원 사찰은 70여 곳.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언제부터인가 사찰들 간에 알력이 생기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식으로 변해 버렸고, 분당 신도시가 생기면서부터는 신시가지인 분당구와 구시가지인 중원구·수정구 간의 경쟁으로 거리감이 생기면서 '성남 불교는 두 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찰들이 신행 및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그때도 다행인 것은 성남의 스님들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또 변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사암련연합회 활성화를 위

###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 지역사찰 화합·사회활동 앞장

해봉 스님 (이천 용덕사 주지·이천사암련회장)



12년째 이천사암련회장을 맡고 있는 해봉 스님은 지역 사찰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천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년 전 용덕사를 창건, 다양한 법회와 신행활동을 통해 이천 불교 활성화를 꾀했으며, 경내에 복지시설인 마야원을 설립해 불우 아동과 청소년도 보살피고 있다.

#### 20여년간 성남서 포교 진력

지관 스님 (성남 용흥사 주지·성남사암련회장)



지관 스님은 성남에서만 20년 가까이 포교활동을 해왔다. 2년 전부터 사암련연합회 회장을 맡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지역 사찰의 단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늘 안타깝다. 지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 포교활동'이 필수적이며, 사암련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중무행정·포교·복지 전문가

성호 스님 (용인 용덕사 주지·용인사암련회장)



성호 스님은 선방수좌 출신으로 중무행정·포교·복지·사회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 능력을 겸비한 스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는 조계종 환경위원회 상임 집행위원장, 용인사암련 회장과 용인경찰서 경승실장 등을 맡아 눈고 뜰 새 없이 바쁘다.

#### 주민 위한 교육·문화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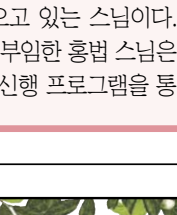
효관 스님 (성남 봉곡사 주지)



효관 스님은 중앙승가대·건국대 등에서 불교학·정지교화·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 서울시 중동 2급 정교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민들레'이다.

#### 주말 참선 등 새 신행문화

홍법 스님 (이천 영월암 주지)



이천 불교의 기대를 모고 있는 스님이다. 2005년 5월 영월암 주지로 부임한 홍법 스님은 도량 봉사과 주말 참선 등 신행 프로그램을 통

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찰 토지 확인 작업으로 분주하다. 30만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으로, 영월암과 시내에 있는 포교당을 수행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아울러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가꾸겠다는 계획 아래 다양한 사업을 구상중이다.



#### 해의·청소년 포교에 적극적

혜안 스님 (성남 약사사 주지)



복지와 해외포교에 관심이 많은 혜안 스님은 약사사 복지신행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미안마와 스리랑카의 기술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미안마 새벽사원 불탑 복원사업과 고아원 후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효와 신행 일치' 강조

지법 스님 (이천 관음사 주지·이천사암련 총무)



5년째 이천사암련 총무를 맡아 사암련 회장 해봉 스님과 호흡을 맞추며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현재 태고종 동부종무원 총회원으로 활동 중인 스님은 신도들에게 효와 신행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절에 오는 것보다 집안을 편안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것은 '효'를 실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 복지관 연계 자원봉사단 구성

성화 스님 (성남 장안사 주지·한울종합복지관장)



장안사 불교대학의 졸업자들을 기수별로 나눠 복지관 양로원 등 분야별 자원봉사단으로 구성해 활발한 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성남에서는 유일하게 불교유치원(장안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포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전반을 운영하는 등 신도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 일요법회·경전학교 계획

법공 스님 (용인 백련사 주지·용인사암련 총무)



올해 초 백련사 주지로 부임한 법공 스님은 도량 보수봉사와 함께 신도회를 조직하는 등 백련사가 지역 불교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기도도량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내한전을 새로 건립하고 일요법회와 경전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나서 계획이다.

### 2005학년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 현 공 풍 수

- 교육기간 : 2학기 과정
- 강의시간 : 초급 - 수요일 오후 6시 - 8시 50분  
중급 - 월요일 오후 6시 - 8시 50분
- 접수기간 : 8월 1일 - 9월 2일(오전 10시 - 오후 3시)
- 담당교수 : 선공세준
- 교수약력 : 활발선원 원장,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포천중문과대학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 학기당 학비 : 300,000원
- 교 재 명 : 현공풍수학(선공세준 편역 011-706-4090)
- 교육목표 : 현은 통일과 하도를 뜻하고 공은 공간낙서를 뜻하며, 현공이란 시간, 공간, 방위의 기를 상호 전환하는 방정식으로 선후천 팔괘오행운을 현대적 에너지 기들을 파악하여 1-9까지 구성 천문에 따라 기운의 배치와 묘, 주택, 도시건축, 아파트, 상가, 빌딩 등 자연과 인간 환경 전반분야에 풍수의 길흉에 대해 조사하여 비보 개선하는 최상승 풍수 법술이다.

#### ■ 강의내용

##### 초급반

- 현공풍수의 대의 : 양택의 가량배치와 풍수사상
- 현공 역리와 남강 오행 : 풍수역학과 가량의 과학적 요인
- 현공풍수학의 길용화복의 근거 : 형기론 이론론 물형론 종합
- 현공풍수 학파(현공 풍수 인물) : 역래풍수(양택상오)와 비성(현공)풍수의 역평
- 현공풍수 하도낙서의 핵심 : 낙서 후천팔괘의 결합
- 현공풍수의 운형 : 구성의 계적과 공간방위의 정립
- 현공 선반(주택과 방위법) : 왕성과 비왕성의 관계
- 현공풍수의 사물변화 현상법술 : 하도수와 운반관계 (주택, 묘, 공간, 기술법)

##### 중급반

- 현공풍수 별의 순서 정하는 법 : 24 상황 음양 영정 (묘지주택 정하는 법)
- 현공풍수의 청구 : (주택, 묘, 도시, 상가, 아파트, 인테리어)
- 지문과 입수 운기법
- 정음(淨陰), 정양(淨陽), 남감(納甲법) : 천문 연월일시 기준과 2분 2지
- 성문 이궁을 논하는 법 : 물의 종류와 물의 영향에 관하여
- 번음 북음, 음양 합성법 : 음의 지세와 형구 명당보는 법

- 포대 시대국 수법 허외실(虛實) : 삼반삼침(三盤三針), 정(正)·기(氣)·운(運)
- 현공 간음법, 장풍법, 득수법, 정월법, 좌향법, 형국법
- 용혈수수(龍穴砂水向) 아파트 실내풍수인테리어 코드 (책상, 침대, 주방, 소파 등등)
- 삼합반(三合盤) 9층 패철(佩鐵)과 현공원반과 천문풍수
- 천지인(天地人)공간의 원방각 기 측정원리

##### 중급반

- 현공 애성 하계 변수법, 성문2궁법, 칠성 타권, 현공풍수의 증명

- 공개 강좌 : 9월 7일(수) 오후 6시
- 온라인 접수 : 조흥은행 313-03-004148 (매주: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http://dguc.dongguk.ac.kr>
- 문의전화 : 사회교육원 ☎ 02)2260-3728~9
- 개인지도 : 원방각 - 서울 서초구 서초 2동 교대사거리 큐브플러스 1513호 02)587-2855 / 011-706-4090